



승자와 패자 스페인의 이니에스타가 12일(한국시간) 네덜란드와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을 에도하는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왼쪽). 네덜란드의 스네이더르가 스페인에 0-1로 패한 뒤 머리를 감싸쥐며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니 하르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이니에스타 세리머니 화제

‘무적 함대’ 스페인을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정상에 올려놓은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바르셀로나)의 천금같은 결승골은 세상을 떠난 동료 선수 다니엘 하르케에게 바쳐졌다.

12일(한국 시각)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네덜란드의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서 0-0의 살얼음판 같은 균형이 이어지던 연장 후반 11분.

이니에스타는 세스크 파브레가스(아스널)와 합작으로 빚어낸 절묘한 오른발 발리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낸 뒤 곧바로 상의 유니폼을 벗어내고 그라운드 위를 질주했다.

순간 유니폼 아래에 입고 있던 흰색 민소매 상의와 함께 손수건을 정성들여 쓴 것이 분명한 “Dani Jarque siempre con nosotros”라는 스페인어 글귀가 드러났다. “다니 하르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었다.

하르케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축구팀 에스파뇰의 중앙 수비수로 지난해 8월 시즌을 앞두고 소속팀 훈련에 참가하던 중 이탈리아의 한 호텔에서 갑작스러

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6세의 아까운 나이에 요절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고 프리메라리가 동료들은 그를 추모하는 의미로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이니에스타의 ‘탈의’ 세리머니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동료 선수를 잊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추모 세리머니’였던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상의를 탈의하거나 옷에 특정 문구를 내보이는 골 세리머니는 경고에 해당하고 이니에스타 역시 주심의 옐로카드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죽은 동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꿈의 무대’인 월드컵 결승에 올라 첫 우승 감격을 함께 나누는 이니에스타의 동료 사랑에 스페인은 물론 전세계 축구팬들도 아낌없이 찬사를 보냈다.

이날 결승골로 ‘맨 오브더 매치’로 뽑힌 이니에스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오늘 승리는 하르케와 우리 가족, 스페인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결승서 14번 경고” 최다...경기당 2.27골 득점 저조

### ■숫자로 본 남아공 기록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은 역대 최다 경고 결승전 등 이색 기록을 여럿 만들어낸 대회로 남았다.

12일(한국 시각)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네덜란드의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은 이번 대회 ‘최다 경고’ 경기이자 역대 월드컵 결승전 사상 가장 많은 옐로카드를 기록한 경기였다. 전반 30분이 채 되기 전에 양팀에서 5명이 경고를 받을 정도로 과열 양상으로 치달은 이날 결승전에서 네덜란드는 9장, 스페인 5장의 옐로카드를 받는 등 총 14장의 경고가 나왔다. 네덜란드의 온 헤이팅이는 연장 후반

### 스페인, 패스 성공률 80% 1위...사비·비야 등 활약 두드러져

4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까지 당했다.

월드컵 결승에서 경고가 14번이나 쏟아져 나온 것은 종전 최고치인 1986년 멕시코 대회 결승인 아르헨티나-서독 경기의 6번을 2배 이상 넘어서는 신기록이다.

한편 남아공 월드컵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48경기과 결승전까지 토너먼트 16경기 등 모두 64경기를 치르는 동안 145골이 터져 경기당 2.27골이라는 저조한 득점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골 월드컵이었던 1990년 이탈리아 대회 때의 2.21골(52경기 115골)에 근접한 수치이며, 본선 참가국이 32개국으로 총 64

경기를 치르기 시작한 1998년 프랑스 대회 이후에는 이번 대회의 경기당 득점이 가장 적었다.

종전까지는 2006 독일 월드컵의 2.3골(64경기 147골)이 최솥였다.

팀별 득점에서는 ‘신형 전차군단’으로 거듭난 독일이 조별리그부터 3-4위전까지 모두 7경기 동안 16골을 넣어 1위에 올랐고 네덜란드(12골), 우루과이(11골), 아르헨티나(10골)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점이 가장 많았던 팀은 북한. 포르투갈에 내준 7골을 비롯해 모두 12골을 잃었다.

가장 부지런히 뛴 팀은 단연 스페인이었다. 출전 선수들이 모두 767.39km를 달렸고 슈팅도 가장 많은 121개를 시도했다.

패스 부문에서도 3천803개를 시도해 이중 80%를 성공시켜 각 분야 2위인 독일(2865개 73% 성공)과 브라질 (2254개 79% 성공)을 압도했다. 사비(FC바르셀로나)가 80.2km를 뛰고 669개의 패스를 배달해 가장 부지런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고, 가장 열심히 상대편 골문을 두들긴 선수에는 17개의 유효슈팅을 시도해 5골을 성공시킨 다비드 비야(발렌시아)가 1위에 오르는 등 개인별로도 스페인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밖에 가장 유효슈팅을 많이 시도한 팀은 우루과이로 46개를 기록했고 가장 빠른 팀은 최고 시속 32.15km의 멕시코였다. /연합뉴스

## 점쟁이 문어 파울 장외 MVP ?

### 스페인 우승까지 예언 적중률 100%

승전과 3-4위전 그리고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결승전까지 모두 8경기에서 승리 팀을 골라내는 신기(神技)를 발휘했다. 확률로 계산

하면 256분의 1. 이 ‘문어 신막(神託)’ 장면은 준결승전과 결승전을 앞두고 유럽 전역에 생중계 되면

서 축구팬들은 또 다른 승부의 묘미를 즐겼다. 이번 남아공대회에선 화려한 플레이가 실종됐다는 아쉬운 소리가 많이 들렸던 만큼 MVP를 아예 파울에게 주자는 얘기도 들린다.

아깝게도 문어의 수명은 보통 3년. 2살 반의 나이인 파울은 당장 ‘유로 2012’와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도 나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KIA “천적 반드시 잡아야 4강 도약”

### 이번주 잠실·군산에서 LG·SK와 힘든 승부

### 울시즌 두팀에 16패...완패 땀 4강 꿈 나락으로

연패의 늪에서 탈출한 KIA 타이거즈가 4강 기로에서 난적들과 격돌한다.

한화를 제물 삼아 간신히 16연패의 늪에서 벗어난 KIA가 이번주 잠실로 올라가 LG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주말에는 군산에서 SK와 힘겨투기를 한다.

연패 후 2승을 만회하며 기사화됐지만 4강 길은 아직 장담할 수 없다. 4게임차까지 달아난 4위 롯데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승리가 간절하다.

하지만 팀 재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두 팀은 올 시즌 KIA에게 16패를 안겨준 ‘천적’들이다. 막강화력을 앞세운 LG와의 전적은 4승 7패. 이중 5패는 점수를 지키지 못하고 내준 뼈아픈 역전패다.

KIA는 2009시즌 LG를 상대로 16승 1무 2패를 수확했지만 올 시즌 입장이 뒤바뀌었다. 힘 빠진 KIA는 상대전적에서 열세를 보이며 1.5게임차로 5위 LG를 쫓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맞대결에서 고배를 마셨던 SK는 올 시즌 KIA에게 ‘공포의 팀’이 됐다. 투·타의 탄탄한 전력을 앞세운 SK와의 상대전적은 2승 9패. SK의 1위 독주에 KIA가 도우미가 되고 말았다.

KIA 연패의 중심에도 SK가 있었다. 4연승을 달리고 있던 KIA는 지난달 18일 SK와 문학에서 만났다. 이날 KIA는 윤석민의 완벽 피칭을 앞세우고도 조동화의 끝내기 안타에 고개를 숙였다. 윤석민은 이 경기 직후 광장심을 잃고 락커를 내리치면서 손가락 골절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했다.

팀 역대 최다 연패 기록(9연패)을 갈아치웠던 지난달 29일 상대도 SK였다. 마운드의 보루 양현종을 내고도 역전패를 당한 데다 경기도중 최희섭이 SK 1루수 이호준과 충돌하면서 병원에 실려갔다.

또 다시 역전패를 당하며 기세 꺾인 KIA는 전력의 핵심 최희섭까지 부상병이 되면서 결국 16연패까지 채우고 말았다.

연패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상대가 약체 한화였다는 점에서 LG와의 대결이 KIA의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무대가 될 전망이다.

KIA는 끝없는 추락 속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여유와 힘을 잃어버렸다. 5위 LG와의 싸움에서도 완패를 당한다면 SK와의 주말 경기는 4강의 희망을 접어야 하는 최후의 무대가 될 수도 있다.

부상병 윤석민·김상현의 복귀 카드를 ‘조커’로 활용하기도 전에 4강의 꿈이 무산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한 주가 KIA를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안치홍, 2년연속 ‘별들의 잔치’ 간다

### KIA 최희섭·이용규 등 3명 올스타에

‘최연소 미스터 올스타’ 안치홍이 2년 연속 별들의 잔치에 초대됐다.

오는 24일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2010

프로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할 베스트 10 인기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내야수 안치홍과 최희섭 그리고 외야수 이용규가 팬들의 선택을 받았다.

14번째 올스타에 도전했던 이종범은 웨



〈안치홍〉 〈최희섭〉 〈이용규〉

스탠리리그 외야수 부문 5위를 기록하면서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롯데 홍성흔은 81만8269표를 획득해 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다득표 선수에 선정됐다. 지난해 두산 김현수가 기록한 71만1290표를 뛰어 넘어 역대 최다 득표다.

구단별로는 웨스턴 리그에서 KIA와 넥센이 각각 3명, LG와 한화 각각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스턴 리그에서는 롯데가 8명의 베스트 10을 배출했고, 두산은 2명의 선수가 선정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크리머 “메이저 생애 첫 승”

### ‘뒷심 발휘’ 최나연 이쉬운 준우승

### US女오픈 한국 남자군 6명 ‘톱10’

‘핑크 팬더’ 폴라 크리머(미국)가 한국 군단의 불꽃 추격을 따돌리고 제65회 US여자 오픈 골프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왕관을 차지했다.

크리머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먼트의 오크먼트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4라운드를 함께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 함께 3언더파 281타를 적어내 5타를 줄이며 추격한 최나연(23·SK텔레콤)을 4타차로 따돌렸다.

지난 주 제이미 파웬스 코닝클래식 연장전에서 승리한 최나연은 2주 연속 우승과 함께 첫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렸지만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함께 공동 2위(1오버

파 285타)에 올랐다.

크리머는 LPGA 투어에서 개인 통산 9승과 함께 처음으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며 미국의 에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상금은 58만5000달러.

최나연은 특히 9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을 그린 위에 올린 뒤 이글 퍼트를 집어넣어 크리머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최나연은 13번홀(파3)에서 티샷을 그린 위에 올리기도 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1타를 잃어 버렸고 17번홀(파4)에서 버디로 만회한 뒤 18번홀(파4)을 파로 막고 먼저 경기를 마쳤지만 크리머의 우승을 막지 못했다.

마지막날 3타를 줄인 김인경(22·하나금융)이 4위(2오버파 286타), 신지애(22·미래에셋)와 양희영(21)이 공동 5위(3오버파 287타), 박민비와 재미교포 김초롱(26)이 공동 8위(5오버파 289타) 등 한국 및 한국계 선수 6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국가대표 새 이름 ‘팀 코리아’ 명명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는 앞으로 ‘팀 코리아 (Team KOREA)’라는 이름을 달게 된다.

창립 90주년을 맞은 대한체육회(KOC)는 12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파크텔에서 열

린 창립 90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새 이름 ‘팀 코리아’를 발표했다.

한국 스포츠의 우수성을 알릴 대표 브랜드로 기획된 ‘팀 코리아’는 KOREA를 붓글씨체로 표현해 역동적인 힘을 담고 있으며 특히 ‘K’에는 태극의 두 색깔인 파랑과 빨간색을 사용해 ‘K(사람 인)’자와 ‘K(큰 대)’자를 형상화, 자긍심과 상징성을 의미했다. /연합뉴스